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3)



이우제 목사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러티브 설교 형식 개발」(공저, 대서)가 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 1:9)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환난”, “나라”, “참음”은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푸는 압축과일과도 같다. 편의상 환난, 나라, 참음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환난-참음-나라) 논의해 보면 손쉽게 요한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집채만 한 큰 파도를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서평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 인생의 황혼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노년의 때를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 유배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정치범으로 수용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요한은 자신을 먼저 “환난”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그 당시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과 성도들이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다. 그 여파로 인하여 지도자 요한은 유배지로 오게 되었고, 교인들은 작고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환난이 찾아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앞에서의 요한의 반응이다. 그것은 바로 참음, 즉 인내로 견딘 것이다. 어떻게 환난에서 참음이 가능했을까? 중간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기에 요한은 견디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어 환난, 참음, 나라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

요한은 지금 뜻하지 않았던 환난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요한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유배지에 갇히는 고통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어느 날 박해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와 힘든 현실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한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분노하며 실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에 붙들려 냉담한 수궁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반응은 죄책감으로의 여행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런 뜻하지 않은 환난의 손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아차! 싶어 한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면 죄책감이 발동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의 나

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아서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은 우리가 특별해서 찾아오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특별한 고통은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로 인하여 생겨지는 것이다. 특별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형제요”에 답이 있다. 요한의 고난이 그의 형제들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형제들과 “연결되는 생애”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 그는 소위 말해서 고립된 생애가 아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마쳐야 하는 생애가 아니다. 공감대를 만드는 생애가 되는 것이다. 환난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 특별히 남 다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특별한 사명자”이기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실족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괜찮게 살았다는 분들은 죄책감도 있지만, 그 보다는 분노하며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살았는데 환난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갔는데도 풍랑이 거세게 찾아온 것이다. 나름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주님이 분부하신 자리로 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절규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어려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언제나 풍랑 없

는 항해를 하게 만드는 보장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 것으로 풍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은 냉담한 수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냉담한 수궁이라는 이 세 번째 옵션은 어쩌면 위의 두 경우들보다 더 수준이 있는 분들이 선택인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하면 안 된다는 태도인 것이다. 괜히 하나님께 소리쳤다가 더 밋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축복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에 고난이 올수록 더 그 분에게 “예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매우 멋진 신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 것이다. 냉담한 수궁의 태도는 매우 “정직성이 없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으로 둔갑해 버린 억압당한 자의 모습인 것이다. 마틴 부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한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인격이 없는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의 모습은 다르다. 시편기자는 억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항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 그러한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정직한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요한도 오늘 본문 지금 10절에서부터 보시면 그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정직한 절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는 계 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봉된 책을 열자가 없다고

하자 크게 운다. 막 때를 쓴 것이다. 그 정직한 항변에 위로가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하늘 보좌에서만 아니라, 밋모에서도 동일한 자세였을 것이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정직하게 아프다고 소리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그다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참음

다시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위기를 통제 할 수는 없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통제 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환난 앞에서 산산 조각 나지 않을 수 있다. 참음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인내로 버티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요한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요한의 선택한 그것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밋모”에 유배당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피해갈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심령적으로 우리 안에 밋모를 넉넉히 극복할 수는 있다. 광야라는 땅에 거할 수는 있어도 광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음의 미덕을 독려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모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는데 있다. 신앙을 사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곧 참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인내를 강조하는지는 믿음보다 인내를

먼저 말하고 있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 13:1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그렇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신자는 외적으로 보면 불행한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편안함이 기준이 된다면 사도 요한이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안함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편안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가 밧모 섬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치지지는 않았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편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평안은 약속하고 있다. 평안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 주시겠다고 하신다. 신자에게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사항”이지만, 평안은 “필수사항”인 것이다. 편안해도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편안이 없어도 평안이 있으면, 가난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을 소유한 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만 있으면, 극심한 어

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며 누려야 할 사항인 것이다.


환난에서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

뜻하지 않은 환난이라는 복병이 찾아 올 때, 참음을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을 어디에 있는가? 환난과 참음 사이에 있는 단어인 나라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요한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임재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면 능히 이러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가 완성되는 최종적인 국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은 두루마리 책의 인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양 예수님이시다. 어린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과 함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다.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왼손이라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이다. 두 손의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왼손을 통한 심판은 오른손을 통한 구원을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의 심판을 통하여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희망은 빛이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을 빛의 충만함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예수님에 의해 완성될 하늘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빛은 시각 경험의 기본이다. 빛을 통해 무엇이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천지 창조 때 맨 처음 한 일은 빛을 만드는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 환상은 예수님의 빛의 바다에서 계시는 분, 곧 세상의 빛임을 보여준다. 이제 마지막 창조는 하늘이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하고 따르는 그 빛이 어두움을 정복한다고 믿는다.”¹⁾ 이렇게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희망으로 충만하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차단되지만 않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요한은 바로 그 산 증거인 셈이다. 몸을 비록 밤모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으로 충만해 있기에 환난에서 참음이라는 미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 된 우리들의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을 응시하는 것으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응시한다는 것은 그저 하늘만을 쳐다보는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그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나라인 것이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만 임하는 분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지지치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국면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적인 국면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

인 예를 밝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경우로 설명해 보자. 사도 요한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다 밝모 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요한의 운명에 대한 믿을만한 주석가인 그랜트 오즈본의 말을 들어보자.

“요한은 단지 짧은 기간 밝모 섬에 있었고, 도미타야누스 황제가 죽은 후인 주후 96년에 네르바 황제의 사면령으로 밝모 섬을 떠나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 받은 것으로 보인다.”²⁾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도요한은 미래에서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권능을 맛보게 된 것이다. 고난의 시대 속에서 그와 동행하시고, 친히 그 능력의 팔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통치와 현존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참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유진 피터슨, 목사: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홍병룡 역 (서울: IVP, 2002), 253.

2) 그랜트 오즈본, 요한계시록,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115-6.